제10호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1-4 (7월/8월)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 1
2. 주요 특징 ····· 2
3. 개별 사설 특징 ····· 6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7. 1	중국공산당창건 10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2	7. 2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더욱 강화하자
3	7. 5	혁명의 개척기와 준엄한 년대들에 발휘된 위대한 정신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4	7.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5	7.11	사회주의한길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는 조중친선
6	7.12	과감한 분발과 불굴의 투쟁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7	7.23	전당, 전국이 농업전선을 백방으로 계속 힘있게 지원하자
8	7.27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군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9	8. 2	당중앙의 뜻과 진정으로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자
10	8. 5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자
11	8. 9	비상한 힘과 열정으로 격난을 부시며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용진 또 용진해나가자
12	8.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로 빛내여나가자
13	8.17	당과 국가와 함께 고심하며 분투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14	8.30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2

주요 특징

◆ **7-8월에 발표한 사설들은 5개년계획 첫해의 반환점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엄혹한 고난과 시련에 맞서 당일군들과 인민대중이 주어진 목표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독려하는 사설들이 다수를 차지**

- 또한 논조의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경제성과에 대한 절박함이 증가하는 경향을 시현

◆ **북중 친선관계를 최고의 수사를 동원하여 선전하면서 현재를 "새로운 전성기"로 규정하고 "북중 친선협조관계의 전면적 부흥" 실현을 전략적 선택으로 설정(7.1)**

-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검증된 불패의 친선"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수한 친선" △"언제나 고락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해온 친선"

* "오늘 조중친선은 훌륭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려는 두 당 수뇌분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 간의 각별한 친분관계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 간 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평가

-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략전술적 협동,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우의와 단결이 강화되는 등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관계임을 강조

- "북중 친선협조관계의 전면적 부흥"은 對中관계를 통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교안보의 후견자로 활용하려는 對中 편승전략의 상징적 문구

* "우리 당과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길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조중친선관계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공고발전될 것"

◆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김일성·김정은과 달리 김정일의 업적을 한 문장 정도로 언급,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김정일 시대의 북중관계를 반영(7.11)**

- 그것도 특별한 업적을 지목하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친선관계의 계승에 초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이 세기를 넘어 꿋꿋이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 간의 이념 대결을 조장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을 북중 친선관계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 첫해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를 동일시하여 당면 국가목표에서의 일체감을 부각(7.11)**

- 미국이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내세워 '민주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

*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중관계가 동지적신뢰와 의리로 굳게 결합된 친선관계로 되고있는 것은 사회주의를 공동의 기치로 하고있기때문이다"

◆ **새로운 혁명발전단계 진입과 엄혹한 도전과 장애 속에서 간부혁명화를 절실한 문제로 규정하고, 일부 간부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경제문제 해결 전에 간부혁명(당적 수양과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7.2)**

-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패배주의와 안일주의, 보신과 소극성, 주관과 독단, 무능과 무책임성을 간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

* "일하는 과정에 범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무책임과 직무태만으로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지 않고 흉내나 내면서 겉치레식으로 하는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반드시 해야하고 할수 있는 일도 외면하는 보신주의와 책임회피, 조건에 빙자하면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패배주의, 일단 결정된 문제들을 흥정하려드는 무규률적 현상"

◆ **당의 간부혁명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7.2)**

- 정치적 생명을 언급함으로써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문책에서 보듯이 아무리 앞서 세운 공이 크더라도 당정책 관철에 태만할 경우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

*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

◆ **일제 강점기·6.25 전쟁기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별것이 아니라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7.5)**

- 정면돌파전을 통해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내적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다음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을 주문

- 현재 진행중인 5개년계획 첫해 수행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사설

◆ **농사를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로 규정하고 전당, 전국적 차원에서의 농촌지원을 통한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독려(7.23)**

*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신심있게 나아갈수 있다"

- 지난해 대규모 수해(재해성이상기후현상)로 인한 알곡생산량 감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폭염과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

◆ **상반기 전력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수십만 키로와트 증산했다고 선전하면서 전력부문을 따라배울 것을 촉구(8.5)**

- 증산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출길이 막힌 유휴 석탄을 화력발전에 투입하고 수풍수력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하였으며 관련 시설을 개보수한 결과로 추정

◆ **3중고 상황을 전시상황과 비교하여 조국사수전, 인민보위전과 같은 전투담론들을 동원,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이 자신과 가정과 후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주장(8.9)**

- 전시상황에서 조국을 보위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로 애국심과 국가이익 우선 관점 견지를 촉구

*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 재해성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곤난과 애로는 전쟁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

◆ **김일성의 업적과 김정은의 업적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 업적보다 군건설 업적을 먼저 언급(8.15)**

- △총대(조선인민혁명군 창건)로 혁명을 개척하고 백승의 역사와 전통 창조 ⇒ 김정은의 불패의 혁명무력 강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건설 ⇒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 군건설 업적을 먼저 언급한 것은 주어진 현실을 반영하여 김정은의 국방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

3

개별 사설 특징 7월

❶ 중국공산당창건 10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7.1)

❍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1921.7.1) 기념 축하 사설

-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로 인해 국력 강화와 국제적 지위에서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선전

❍ 중국공산당의 영도 업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

- △국가안전과 영토완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당을 강화하고 역할 제고 △전반 사업에 대한 당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 영도 보장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에 주력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및 당풍과 청렴정치 건설 추진 △초보적인 부유사회 전면적 건설 및 빈곤청산 투쟁에서의 결정적 전진 △제13차 5개년계획 성과적 완수를 통한 첫 번째 백년목표 달성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속에서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수호

❍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 하에 올해 시작한 제14차 5개년 계획를 비롯한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북중 친선관계를 최고의 수사를 동원하여 선전하는 가운데 현재를 “새로운 전성기”로 규정

-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검증된 불패의 친선”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수한 친선” △“언제나 고락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해온 친선”

* “오늘 조중친선은 훌륭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시려는 두 당 수뇌분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 간의 각별한 친분관계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 간 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

-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략전술적 협동,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우의와 단결이 강화되는 등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관계

❍ “북중 친선협조관계의 전면적 부흥” 실현을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자 의지라고 강조

- 對中관계를 통해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교안보의 후견자로 활용하려는 對中 편승전략의 상징적 문구

* “우리 당과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길에서 언제 변함없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조중친선관계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공고발전될 것”

❷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수양과 단련을 더욱 강화하자(7.2)

❍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6.29) 결정사항 중 간부정책에서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사설

- 김정은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리병철 정치국상무위원, 박정천 총참모장,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을 업무 ‘태공’을 이유로 문책

*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의 사상과 의도를 뼈에 쪼아박고 우리 혁명의 현 국면에 맞게 자신들의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 새로운 혁명발전단계 진입과 엄혹한 도전과 장애 속에서 간부혁명화를 절실한 문제로 규정하고, 일부 간부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경제문제 해결 전에 간부혁명(당적 수양과 단련)의 필요성**을 주문

-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패배주의와 안일주의, 보신과 소극성, 주관과 독단, 무능과 무책임성을 간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

* "일하는 과정에 범한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무책임과 직무태만으로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지 않고 흉내나 내면서 겉치레식으로 하는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반드시 해야하고 할수 있는 일도 외면하는 보신주의와 책임회피, 조건에 빙자하면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패배주의, 일단 결정된 문제들을 흥정하려드는 무규률적 현상"

- 당간부들이 자기 임무에 대한 자각성과 헌신성을 가질 때 대중들을 당정책 결정관철 사업에 조직·동원할 수 있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

❍ 당의 간부혁명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

- 정치적 생명을 언급함으로써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문책에서 보듯이 아무리 앞서 세운 공이 크더라도 당정책관철에 태만할 경우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

* "일하는 흉내만 낼뿐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

❍ 동 회의의 기본사상인 간부혁명을 철저히 혁명화, 정간화, 정예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혁명적 수양과 단련 부단히 강화)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기 △당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갖기 △당적, 국가적 안목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자기의 할 일찾기 △선대수령들의 노작들과 당의 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통한 당의 사상과 의도, 노선과 정책 정확히 파악 △당보(노동신문) 학습열풍일으키기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 △평당원의 입장에서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비판과 사상투쟁 전개 △**"무지와 무능은 혁명의 원쑤"**와 다를바 없으므로 높은 실무능력 보유 △현대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팔방미인이 되기

- (당결정 무조건 관철 기풍 체질화) △자신의 능력과 수준,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하기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원칙에서 상반년 계획수행 정형 구체적으로 분석총화 △현실적 조건과 정책적 요구에 맞게 하반년 계획 수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주도면밀하고 박력있게 수행 △당결정집행을 대중 자신의 사활적 요구로 전환시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과학 기술을 믿고 자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계획수행의 지름길 개척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보신주의와 책임회피, 패배주의, 무규율적 현상들과의 투쟁 전개

- (사업작풍과 도덕품성 개선 노력 전개)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 해결 △겸손하고 밝은 인상으로 사람을 대하기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청렴결백하며 근로자들과 동고동락

- (당조직들에서 간부혁명방침 철저히 관철) △간부사업체계와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강화 △간부대열을 충실성, 인민성, 실력에 기초하여 정간화, 정예화 △당성, 인민성이 낮은 대상들에 대한 대책 강구 △다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강도 제고

❸ 혁명의 개척기와 준엄한 년대들에 발휘된 위대한 정신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자(7.5)

❍ 선대의 혁명정신을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함으로써 난국 타개와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여러 혁명정신들 중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특별히 강조

❍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기와 비교할 때,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별것이 아니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과거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

- 현재의 **정면돌파전**을 통해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고 내적동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다음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을 주문

- 현재 진행중인 5개년계획 첫해 수행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웅변하고 있는 대표적 사설

❍ 선대의 혁명정신들 중에서 세 가지 혁명정신을 선별하여 강조

- (수령의 구상과 의도 결사관철) △8차 당대회와 당중앙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은 수령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성스러운 사업 △당이 준 과업에 대해 흥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자만이 수령의 충실한 전사 △당의 결정과 정책을 법이자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철저히 관철

-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공격정신) △자재나 자금보다 절실한 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곤난극복정신 △천리마세대(전승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한 자존과 번영의 활로 개척

❍ 선대의 혁명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 제시

- (혁명신념과 자력갱생정신 함양을 위한 선전선동공세 전개) △선대들의 투쟁방식 적극 따라배우기 △계층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양방법들을 탐구·적용하여 혁명정신 무장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영화와 출판보도물 등 교양수단 적극 개발을 통한 선대들의 혁명정신 각인시키기 △사상교양사업을 한번에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대중들의 모범을 발굴·소개·일반화하기

-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 투쟁 과감히 전개) △선대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주어진 목표 무조건 철저히 수행 △금속공업부문은 천리마시대 강선노동계급의 혁명정신 부활/화학공업부문은 비날론 속도 재현/석탄·전력·운수·경공업·농업부문은 포화속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정신으로 생산적 앙양 일으키기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완수**

- (집단주의정신 발휘) △어렵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며 동고동락하기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모든 것을 국가적 입장에서 대하기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고 공장이 공장을 도우며 함께 전진하고 발전하는 기풍 철저 확립

❍ (선대의 투쟁정신과 기풍 따라배우기에서 청년들이 앞장서기) △청년들은 혈기왕성한 시절에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념비적 창조물들 건설 △대고조 전역에 적극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 다하기 △가치있는 발명과 과학기술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개척자, 주인공되기

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7.8)

❍ 김일성 사망 27주기 기념 사설

-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이민위천 이념을 부각함으로써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계승성과 정당성을 선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주체사상을 내놓으신 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이민위천의 리념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것이다”

- 과거의 인민중시 주장이나 학설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인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에서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고, 김일성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사를 개척했다고 주장

* “동서고금에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지만 인민대중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의 존엄을 빛내여주신 분은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

❍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업적을 선전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정식화 △주체의 인민관과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문제들을 당회의의 주요 의정으로 제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명령서 발령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민위천 이념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선대 수령들의 인민을 위한 업적 빛내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투쟁에 헌신 △선대 수령들의 영도사적을 통한 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유훈교시 철저히 관철 △애국충성하는 열혈투사, 의리의 인간되기

- (김정은과 뜻·숨결·발걸음 함께하기) △김정은의 사상과 의도 결사관철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따라배워 인민을 위한 좋은 일, 보탬이 되는 일 적극 찾기 △인민의 안녕과 생활향상을 위한 당과 국가의 조치들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

-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결사투쟁 전개) △당 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원칙 엄격히 준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품 높이 발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시련 돌파 및 주어진 인민경제 계획 어김없이 수행 △사회주의 우월성 발양 및 집단주의 미풍 높이 발휘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

-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 제고)

❺ 사회주의한길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는 조중친선(7.11)

❍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1961.7.11) 60주년 기념 사설

- “북중친선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승화·발전”되고 있는 시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조약 체결로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선전

- 특히, 김일성과 중국 원로지도자들과의 두터운 “동지적 친분관계”를 부각함으로써 북중관계의 뿌리깊은 전통과 각별한 친밀성을 과시

❍ 김정일의 북중 친선관계 업적 부분은 한 문장 정도의 언급에 불과, 김정일 시대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반영

- 그것도 특별한 업적을 지목하여 소개한 것이 아니라 친선관계의 계승에 초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이 세기를 넘어 꿋꿋이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였다”

❍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현실은 양국 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

* “제국주의자들이 련합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조중 두 나라가 조약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두 지도자의 동지적 친분관계에 의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지도자 간의 “진실한 동지적 관계”를 친선관계 장성·강화의 추동력으로 규정

-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 간의 이념 대결 구도를 조장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을 북중 친선관계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

*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중관계가 동지적신뢰와 의리로 굳게 결합된 친선관계로 되고있는 것은 사회주의를 공동의 기치로 하고있기때문이다”

❍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 첫해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를 동일시하여 당면한 국가목표에서의 일체감을 조성

-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을,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

❻ 과감한 분발과 불굴의 투쟁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7.12)

❍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6.15-18) 결정에 따라 5개년계획 첫해 수행에서의 성과를 독려하는 사설

- 동 회의가 개최된 지 약 1개월 남짓한 시점에 결정관철을 촉구하는 것은 5개년계획 첫해의 하반기 출발점을 맞이하여 인민들을 재차 독려하려는 의도

* “올해의 방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는데서 이제 남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달성해야 할 전투목표와 계획은 아름차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도 엄혹하다.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 5개년계획 첫해 목표달성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 발휘를 촉구

- 당의 전투적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

* “올해 전투가 빛나는 승리로 결속될 때 당의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생활력이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되고 우리 당의 존엄과 위상이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다”

-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

* “당이 제시한 투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의 진군은 더욱 활력에 넘치게 되고 우리는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배심있게,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사상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계획수행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 발휘) △올해 계획수행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명심하고 계획 완수를 위한 총돌격전 전개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원칙과 전투분위기 견지 △정확한 해결책 찾기와 완강한 집행력 발휘를 통한 계획사업 강력 추진

- (온 나라에 집단적 혁신과 연대적 혁신 앙양) △맡겨진 과업수행이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집행 △국내의 생산단위, 개발단위, 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협동으로 만사 해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배격 및 당과 혁명의 이익,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모든 사업 진행 △좋은 성과와 경험, 선진 기술들을 서로 공유·교류하고 따라 앞서고 따라배우면서 함께 발전하고 비약

- (수백만 당원들의 분발) △당원들은 선두에 서서 전투목표 달성을 위한 선봉적, 핵심적 역할 수행 △목표점령을 위한 돌파구 개척정신, 계획수행을 위한 투철한 각오, 왕성한 일욕심으로 충만 △혁명과업 수행의 선두에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기

- (당일군들의 자기 책임과 역할 완수) △당 결정 무조건 철저히 관철 △기술혁신, 과학기술력 제고 및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올해 경제계획 완수의 지름길 개척 △자기 부문과 단위 사업 최량화와 최적화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적극 실현 △전망성있는 사업 설계와 조직으로 다음단계의 도약대 마련 및 부흥발전과 인민행복 담보 △실속있는 당정책 학습과 성실한 당생활 참가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 받들기

- (당조직들의 빈틈없는 조직정치사업 전개)

❼ 전당, 전국이 농업전선을 백방으로 계속 힘있게 지원하자(7.23)

❍ 전당, 전국적 차원에서의 농촌지원을 통한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농업이 5개년계획 첫해 성과를 체감하는 부문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사를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농촌을 물심양면 지원할 것으로 촉구

*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신심있게 나아갈수 있다"

- 지난해 대규모 수해(재해성이상기후현상)로 인한 알곡생산량 감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폭염과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

❍ 농촌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사상적 각오를 안고 성실히 지원) △전체 인민이 농사의 주인이라는 관점과 입장에서 농촌지원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열정 받치기 △항상 농사일을 생각하고 올해 농사 마감까지 농촌에 대한 지원열기와 지원열풍 고수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농촌지원사업 백방으로 강화) △영농물자들을 최적기에 무조건 보장 △화학비료를 계획대로 생산·공급하고 농기계 부속품 생산 증대 및 질 제고 △전력부문에서의 충분한 전기 보장 △관련부문들에서는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예비와 가능성 총동원을 통한 필요한 영농기구와 자재 보급 △내각 등 국가부문에서는 농장원들의 소비품, 연유, 트랙터 바퀴, 강재와 시멘트 등 필요한 물자 최대한 보장 △농업과학부문에서는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 해결 및 기술적 지원 강화

- (재해성기후의 영향 극복에 총력 집중) △기상관측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날씨예보의 정확성과 과학성 보장

-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 완수 및 당조직들의 책임적 임무 수행)

❽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군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7.27)

❍ ‘조국해방전쟁승리’(전승절) 68주년을 계기로 개최한 7차 전국노병대회 개최 기념 사설

-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6차 전국노병대회를 개최

- 동 대회를 통해 그동안 당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전승세대들의 영웅적 투쟁정신(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후대들이 따라 배워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강국건설 목표를 점령할 것을 독려

* “전화의 나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쟁로병들의 혁명정신을 새 세대들이 변함없이 이어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혁명적 의리의 세계가 비껴있다”

❍ 전승세대가 발휘한 정신적 유산들을 설명

-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른 절대적인 충실성(사상정신적 풍모의 근본핵)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참다운 애국주의(열렬한 사상감정) △신화적인 기적을 안아온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사상정신적 특질)

❍ “최근년간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난관” 속에서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전승세대들의 영웅적 투쟁정신 계승)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히 받드는 참된 혁명전사 되기 △혁명적 수령관을 신념화, 체질화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삶을 살아가기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굴함없는 강의한 투사되기 △수령에 대한 일편단심과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계승하기 △전화의 영웅들(리수복, 강호영, 안영애)처럼 당과 조국을 위해 헌신분투하기

- (전승세대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 한생을 값있게 빛내기) △전승세대의 혁명정신(희생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을 실천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기 △당의 명령과 지시 무조건 관철한 전승세대처럼 5개년계획의 첫해 투쟁목표 점령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 혁신과 연대적 혁신 앙양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전개

- (온 나라에 전승세대처럼 살며 투쟁하는 기풍 확산) △당 및 근로단체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사상공세 전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교양거점 참관사업과 전쟁노병 상봉모임, 전시가요 보급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교양사업 조직·진행 △전쟁노병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는 사회적 기풍 확립 △새 세대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 기울이기

3

개별 사설 특징 8월

❶ 당중앙의 뜻과 진정으로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자(8.2)

❍ 김정은의 뜻과 진정을 받들어 당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믿음을 제일가는 재부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

-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최악의 시련 속에서 취한 모든 노선과 정책, 결단과 조치들은 인민 행복 실현과 직결되어 있다고 선전

❍ 일군들이 김정은의 뜻과 진정으로 인민들을 보살핀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

- (김정은처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 곁에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는 것) △대규모 수해피해 현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복구대책을 지시한 것과 수해복구사업에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하여 파견한 것을 예시

- (무조건적인 복무정신으로 인민을 위한 실제적인 결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 △평양시와 검덕지구 대규모 살림집건설 지시, 소비품과 의약품 생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 경주,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같은 영양식품 공급 지시 등을 예시

❍ 당중앙의 뜻과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자기 지역과 단위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운명과 생활 책임지기) △소방대식 일본새를 단호히 배격하고 사전대책을 철저히 수립 △주민들과 종업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고 생활상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고심하고 해결방도 모색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을 유지하도록 교양사업 진행 △실적을 따지기 전에 후방공급사업과 노동보호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 개선 사업 전개

- (군중 속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문제들을 적시 해결) △군중의 목소리 청취를 습벽화 △신소나 의견을 당에 대한 믿음의 표시, 일군들에 대한 요구로 수용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단호히 배격

- (인민생활과 관련한 당정책을 빠짐없이 관철) △시시각각 제기되는 당정책 집행을 위한 즉시적인 조직정치사업 수립 △오분열도식, 멋따기식 일본새와 공명주의적 사업태도 등 그릇되 사상관점 척결 △당정책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인민의 평가와 반영을 기준으로 총화하고 재포치 사업 심화 △특히, 국산화와 재자원화사업에 주력하고 필수소비품 최대 증산

- (자기 자신에게 높은 요구성 제기) △인민을 위한 고생과 헌신 속에서 행복과 보람찾기 △인민이 바란다면 자기의 운명을 걸고 맡아하는 투신력, 끝장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완강성, 성과의 공을 인민에게 돌리는 겸손성 발휘 △항상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학습에 전념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일군대열을 인민에 대한 헌신성과 인민적 품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적극 지원 △인민의 이익 침해현상과의 강한 투쟁 전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척결투쟁 일관되게 전개

❷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자(8.5)

❍ 당 일군들이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현재를 5개년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당 일군들이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고쳐야 하는 등 분발을 독려

❍ 전력부문의 상반기 전력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수십만 키로와트 증산했다고 발표

- 증산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유휴 석탄을 화력발전에 투입하고 시설을 개보수한 결과로 추정

❍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의미를 설명

-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심의 발현)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삶의 1차적 요구이자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기 △우유부단함과 눈치놀음 현상, 책임한계를 따지며 저울질하는 현상, 소극적으로 일하는 현상 배격

-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분출) △신념이 약하면 보신과 소극성, 패배주의와 요령주의, 수입병과 같은 잡사상, 잡귀신이 싹트고 성장 △난관 앞에서 겁을 먹고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동면하는 현상, 패배주의의 한숨소리는 혁명적 신념 결핍의 산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등 혁명적 낙관주의 견지 하에 당정책 무조건 결사관철

❍ 일군들이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 (당결정을 끝까지 관철하여 당대회의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근본요구) △당정책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체질화 △일군들의 대담하고 박력있는 작전과 지휘로 인민의 혁명적 열정과 애국심 발양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 높이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 도출 △자기 부문과 단위에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충만히 조성 △솔선수범을 통한 당결정 철저히 관철

- (온갖 도전과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비상한 사업능력과 열정, 투신력 발휘 △당과 국가의 고민을 덜기 위해 애쓰기 △난관을 돌파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조성

❍ 당 일군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자기 부문과 단위 사업을 당앞에 책임지는 확고한 입장 견지) △자기 운명보다 당과 혁명의 이익 우선시 △자기 단위 사업의 부진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갖고 부단히 사색하고 연구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 척결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전개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제기

- (창조성, 창발성, 이신작칙의 기풍 발휘) △당의 기대만큼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사업과 생활의 전 과정을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 무한한 헌신성과 이신작칙으로 일관 △당결정 집행 사업을 품을 들여 연구하고 새롭게 착상하며 박력있게 작전, 지휘 △구태의연한 사상관점, 제기된 문제를 위에 미루고 아래에 넘기는 자리지킴, 현상유지나 하는 사업기풍에 종지부 찍기 △자신이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고 집단의 단합을 저애하며 단위발전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아닌지 돌아보기

- (혁명적 수양과 단련 끊임없이 강화) △당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명심하고 혁명화를 다그치기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책임과 본분 다하기 △정치의식 제고에 전념하고 높은 실무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기 △통제와 강요가 아닌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 당조직의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 △평당원의 자세로 혁명적으로, 당적으로 수양, 단련하기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작풍과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군중 속에 들어가 밝은 인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라는 반전(反轉)논리를 활용하여 당일군들의 부단한 수양과 노력을 주문

❸ 비상한 힘과 열정으로 격난을 부시며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용진 또 용진해나가자(8.9)

❍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아무런 정치적 계기 없이 8월 들어 3차례 연속 당 일군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사설을 발표한 것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의 의식한 조치로 추정

❍ 조국사수전, 인민보위전과 같은 전투담론들을 동원하기 위해 3중고 상황을 전시 상황과 비교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이 자신과 가정과 후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주장

- 전시상황에서 조국을 보위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로 애국심과 국가이익 우선 관점을 조장

*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 재해성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곤난과 애로는 전쟁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

- 지금까지의 투쟁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 즉 곤난극복정신과 창조적 힘을 총발동할 것을 촉구

❍ 현재의 투쟁과 총진군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유를 설명

- △김정은의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영도 △엄혹한 시련기를 눈부신 도약기로 반전시켜 온 훌륭한 역사와 전통(전후복구시기→천리마시대→고난의 행군기→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간고한 시련 속에서 축적된 정치사상적 힘과 물질적 잠재력(지난 10년간 적을 이기는 법, 자신을 이겨내는 법, 자력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법을 터득)

❍ 난관을 자강력 증대의 기회로 반전시킨 성과들을 나열

- △인민경제의 자립적 발전 토대 강화 △과학기술중시 기풍 확립 △도식적이고 불합리한 사업체계 극복을 위한 결정적 대책 수립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5개년계획 수행의 기본종자로 제시

❍ 주어진 난국돌파와 자력부흥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위력 총폭발)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당의 지시와 방침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분발 △김정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 강화 △모든 사업을 김정은의 의도대로 수행하는 기풍 확립 △김정은의 귀감을 따라배워 김정은식으로 살며 투쟁하기 △당중앙의 고민과 걱정을 덜기 위한 수준과 능력, 잠재력을 초월한 분투

- (자력갱생 창조대전에로의 분기)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고 자기 땅에서 찾아내는 우리식 개발창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기풍 확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산·장성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및 중단없는 발전 추구 △과학자들의 개척자 역할 제고 및 자체의 과학기술력 부단히 증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학습 강화 및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기수되기

- (집단주의정신 최대 발양 및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대혁신과 대비약 앙양) △혹독한 시련일수록 국가와 집단을 위하는 사회적 기풍 발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고 동고동락하는 미풍 발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철저 배격 및 국가이익 우선시와 국가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하는 관점 확립 △선진경험과 기술들을 공유, 교류하면서 함께 전진하고 발전하는 풍조 확산

- (자기 부문과 단위사업에서 비약적 혁신 일으키기) △자기 부문과 단위가 부실하면 연관부문과 익측부문에 심각한 후과를 미친다는 자각 하에 자기의 책무 완수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세와 입장, 끝장을 보는 완강한 실천력,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이 돌진하는 진취적인 일본새 견지 △현장 속에 들어가 진격의 돌파구를 여는 야전형 지휘성원되기 △부단한 정치실무수준 향상

- (각급 당조직들의 책임과 역할 완수)

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로 빛내여나가자(8.15)

❍ 해방 76주년 기념 사설

- 김일성이 엄혹한 환경과 최악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투쟁한 업적을 부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것을 촉구

-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에 8.15의 의미를 더 크게 부여

❍ 김정은 시대 핵심 화두 중의 하나인 '주체적 힘'(주체혁명역량)이 '항일대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

- 김정은이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선전

❍ 김일성의 업적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업적과 동일시

- △총대(조선인민혁명군 창건)로 혁명을 개척하고 백승의 역사와 전통 창조 ⇒ 김정은의 불패의 혁명무력 강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건설 ⇒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 김일성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업적보다 군건설 업적을 먼저 언급한 것은 김정은의 국방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

❍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을 토대로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일성의 해방 업적과 김정일의 강국건설 업적 빛내이기) △선대 수령들의 업적을 뼈속깊이 각인하고 후대에 전수 △선대 수령들의 애국업적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득하고 옹호하며 대를 이어 빛내이기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발휘 △김정은과 사상, 뜻, 운명 함께하기

- (8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전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5개년 계획 수행에 박차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이 제시한 올해 목표를 무조건 점령 △온 나라에 집단적 혁신과 연대적 혁신의 불길 확산

❺ 당과 국가와 함께 고심하며 분투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8.17)

❍ 당중앙의 뜻을 받들어 도전과 난관을 돌파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분투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당중앙이 최근 함경남도 일부 지역 수해복구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재정적·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을 선전

- 상황이 어려울수록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당과 국가의 짐을 덜기 위해 분투하며 맡은 과업수행에서 실적 창출을 주문

❍ 당과 국가와 함께 고심하며 헌신분투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김정은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해 나가는 충성의 길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애국의 길

- 전쟁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처럼 당과 국가와 고난을 함께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만이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

❍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올해 전투목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이므로 매개 부문과 단위가 자기 목표를 실현할 때 발전이 가능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경제 전반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에 입각하여 진행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활발히 전개 △일시적 이익이 아닌 전망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주체적 힘과 내적 동력 증대사업 전개

- (공민적 의무를 자각 및 비상한 헌신성 발휘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 수호) △비상방역사업을 결사적이고 사활적으로 전개 △자연재해 방지대책 철저 수립 및 피해 최소화(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로 함경남도 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긴급 개최 사실을 모범사례로 제시)

- (상부상조와 동고동락의 미덕과 미풍 높이 발양) △천리마시대의 집단주의 정신을 부활하여 현재의 난국 타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주고 어렵고 힘든 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전 사회적 풍조 조성 △지난해 중앙의 일군들이 수해 지역을 돕고 수도가 지방을 지원했던 미풍을 계속 재현

- (조국번영을 위한 좋은 일 스스로 찾기를 전 인민적 기풍으로 만들기) △나라의 힘든 사정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애국적 소행 발휘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위한 험난한 탐구 진행 △가사보다 국사를 우선시 △나라의 귀중한 설비와 공동재산 애호관리

- (당조직들의 역동적이고 공세적인 사상교양사업 전개) △당과 국가의 혜택에 보답하도록 하는 교양사업 진행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의 모범따라배우기 사상사업 진행

❻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청년의 영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8.30)

❍ 청년절 30주년(8.28) 기념 사설

- 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1991년부터 이날을 청년절로 지정

- 김정은이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1만여명의 청년들에게 보낸 축하문에서 탄원진출을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 계승으로 평가했다고 선전

-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세계적 경향과 달리, 북한의 청년들은 탄원진출과 같이 조국과 사회와 집단 앞에 충실하며, 청년들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변질 기도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

❍ 청년들이 사회주의 승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당을 따라 전진하려는 강한 신념 간직) △김정은의 결심을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 신념 각인 △김정은의 사상과 뜻, 발걸음 함께하기 △가사보다 국사 중시 △어렵고 힘든 초소에 적극 진출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년신화 창조) △자기 부문과 초소에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가장 어려운 과제를 솔선하여 돌파구 열기 △수도와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장 등 중요대상 건설장에서 기적 창조 △청년돌격대운동,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 등 여러 대중운동 활발히 전개 △과학기술 무장 및 끊임없는 탐구정신 발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을 적극 이용한 부단한 실력 배양

-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본태 적극 살려나가기) △집단주의를 영원한 전통이자 국풍으로 되게 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상부상조와 동고동락하는 미덕과 미풍 발휘 △사회주의적 본태와 인민 정서가 구현된 새로운 문화 적극 창조 및 발전 추동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생활하고 부르죠아 사상문화와 비사회주의적 요소 철저히 배격

-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